

<동정자료>

김정렬 차관, “교통·인프라 분야는 신남방정책의 교두보”

국토부 대표단 필리핀, 말레이시아 방문… 공항·철도 등 수주 지원

-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31일(화)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『한-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』을 개최하고, 필리핀의 도로·철도·공항 등 교통·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섰다.

 - 이번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-필리핀 정상회담과 당시 체결된 교통협력 MOU에 따라 양국 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- 한국 정부는 최근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, 교통 분야를 포함한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ASEAN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,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협력 주력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.

 -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“Build-Build-Build”라는 표어 아래 인프라 분야에서 2022년까지 1,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자국의 인프라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.

- 이날 개최된 『한-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』에는 교통부(DOTr), 공공사업부(DPWH), 경제개발청(NEDA) 등 필리핀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자국의 블라칸 신공항 사업, 민다나오 순환철도 사업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공유하고, 우리 기업의 참여와 한국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였다.

 - 포럼에는 100여 명의 현지 진출 기업인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으며, 이후 진행된 B2B 미팅 등을 통해 진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였다.

- 이어, 김 차관은 필리핀 교통부장관과 공공사업부장관을 만나 한국 인프라 산업의 경험과 강점 등을 강조하고,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필리핀 진출을 통해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.

- 이후, 국토부 대표단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제2차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하고, 철도·공항·ITS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.

2018년 8월 1일
국토교통부 대변인